



주간 통일정세

2007-07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경제 관련

<수해 관련>

- **北수해 지원물자 북측 각지 전달 보도 (10/27, 조선중앙통신; 조선신보)**
 -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대북 수해 지원물자가 북한 각지에 속속 전달
 - 북송 모포 가운데 1차분 2만장은 지난 8일 평양에 도착한 뒤 량강도와 자강도, 평안북도, 황해북도, 평양시 일부 지역으로 발송됐고 2차분 3만장은 23일께 강원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평안남도, 황해남도의 수해지역에 지원

<공업 및 기타>

- **北내각, 전원회의서 전력·석탄 등 증산 논의(10/23, 조선중앙통신)**
 - 김영일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열어 전력, 석탄, 금속, 철도 등 이른바 인민경제 선행부문의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 회의에서 김 총리는 ‘인민경제의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치켜세워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의 진격로를 열어나갈 데 대한 문제’를, 로두철 부총리는 ‘2007년도 3, 4분기 국가예산집행 정형총화와 대책에 대한 문제’를 각각 보고
 - 보고에 이은 토론에서 “전력공업과 석탄공업,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를 앞세워 나가기 위한 목표와 과업들에 대해 토의하고 3, 4분기간 국가예산집행과 관련한 총화가 있었”으며 “회의에서는 해당 결정을 채택”한 것으로 보도됨

나. 김정일 동향

- **北 강덕수 인민군 상장, 사망 조의 화환 증정(10/26,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강덕수 인민군 상장(우리의 중장)의 사망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26일 그의 빈소에 화환을 보냄
 - 강 상장(1915년생)은 인민무력부 후방총국 산하 부대장(1979), 군소장(우리의 준장, 1984), 중장(우리의 소장, 1992), 상장(2001)으로 승진했으며 1997년부터 인민무력부 혁명사적관 관장직 수행, 1982년 제7기부터 현 임기인 1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 아버지 강용석은 고 김일성 주석의 외삼촌으로, 강 상장은 김정일



위원장의 오촌 당숙뻘임. 동생 강현수(1917~2000)는 인민군 중장, 사회안전성(현 인민보안성) 정치국장, 평양시당 책임비서 등을 역임

다. 사상교양 강조

- **당세포비서대회 폐막(10/27, 조선중앙텔레비전)**
 - 13년 만에 개최된 북한의 '전국 당세포비서대회'가 1박 2일간의 일정을 끝으로 27일 폐막
 - 조선중앙TV에 따르면 최태복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는 이날 폐막사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우기 위한 혁명적 진군에서 당세포들이 당의 말단기층조직으로서, 당정책 관철의 기본전투단위로서 기능과 역할을 다하자면 당세포비서들의 사상정신세계와 사업기풍, 일본새(일하는 태도)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고 촉구
 - 참석자들은 대회를 마치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내는 '맹세문'을 채택
- **여맹 전원회의 개최 (10/26, 조선중앙통신)**
 - 조선민주여성동맹(여맹) 중앙위원회 제50차 전원회의가 박순희 여맹 중앙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5일 평양에서 개최

라. 기타

- **소나무 재선충·가지마름병 약제연구 강화(10/28, 조선중앙방송)**
- **여자초등생 축구선수 지망 '열풍'(10/28, 조선신보)**
- **평양 시내 가로등 컴퓨터로 관리 (10/27, 조선신보)**
- **외상정형외과 선진기술 도입 토론회 (10/27, 조선신보)**
- **北대표, 민족간 문화재 반환 중요(10/2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에서 민족간 문화재 반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
- **세계전쟁史 출간(10/26, 조선신보)**
- **담배추방 확산...금연전문매장 연내 개장(10/23, 조선신보)**
- **질병치료에 사상의학 적극 활용(10/23, 조선중앙방송)**



- **北, 과학자·기술자 생활보장 해줘야(10/22, 노동신문; 우리민족끼리 웹사이트)**
 -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과학자와 기술자의 생활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
- **北 은나노 음료·치약 등 속속 개발 (10/22, 조선중앙방송)**

2. 대외정세

가. 북·중 관계

-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대표단 中선전경제특구 방문(10/28, 중국 선전특구보)**
 - 북한의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이하 김사청) 대표단이 중국 남방에 위치한 선전 경제특구를 방문
 - 길철혁(吉哲赫) 김사청 중앙위원회 국제담당 서기가 이끄는 대표단은 27일 오전 선전 우저우(五洲) 호텔에서 리밍(李銘) 선전시 부시장을 접견한 뒤 디왕(地王)빌딩, 선전시소년궁전, 선전시음악당, 다주(大族)레이저유한공사, 창웨이(創維)그룹, 옌텐(鹽田)항 등을 시찰,
 - 이중 우저우호텔과 옌텐항 등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작년 1월 선전 방문 당시 들렀던 장소
 - 이번 방문은 쌍방 정기교류 협정에 따른 것으로 베이징(北京)에서 중국공산주의청년단과 교류행사를 갖고 선전으로 내려온 것으로 전해짐.

나. 북·베트남 관계

- **김정일, 베트남 도이모이 정책 가치를 높이 평가(10/28, 아주주간)**
 - 마잉 서기장을 수행하고 돌아온 팜 자 키엠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마잉 서기장에게 베트남의 20년 간에 걸친 도이모이(革新) 정책의 성취를 매우 높이 평가했다”고 주장하며 “김 위원장이 베트남의 ‘귀중한 경험’을 거울로 삼기 위해 베트남측의 답방 초청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고 선언
- **北총리, 베트남 방문(10/28, 조선중앙방송)**
 - 베트남을 방문 중인 북한 김영일 내각총리가 27일 농 득 마잉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을 예방
 - 김 총리의 예방에는 림경만 무역상과 리경식 농업상, 문재철 대외문화연락위원회 위원장 대리, 김영일 외무성 부상, 마철수 베트남 주재 북한대사 등이 참가



- 부문별 회담에서 양측은 “조선과 원남 사이의 친선관계를 여러 분야에 걸쳐 확대 발전시켜 나갈 데 대해서와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 문 위원장대리와 황 뚜언 아잉 문화·체육 관광상은 ‘2008~2010년도 문화, 예술, 과학 및 교육교류계획서’에 서명했고, 양국은 ‘농업과 학기술분야에서 협조에 관한 양해문’도 체결

3. 대남정세

<남북교류>

- **남북 경협구상에 대한 긍정적인 북측반응 부각(10/28, 조선신보)**
 - 모란봉피복공장 지배인은 이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와 인터뷰에서 “북남 수뇌(정상)분들이 서명한 선언에 민족경제의 발전을 위한 일련의 구상과 계획이 명시돼 있다”며 “이곳 공장 노동자들이 더욱 분발해 생산활동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로 됐다”고 주장
 - 모란봉피복공장은 1987년 일본의 모란봉주식회사와 북한의 은하무역총회사가 합작해 설립한 회사로, 양복과 코트, 와이셔츠, 점퍼 등을 생산해 수출하고 있음
- **총리회담 개최 합의 보도(10/2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26일 개성에서 남북 총리회담 예비접촉이 열린 소식을 짙막하게 보도
 - 중앙통신은 “이번 접촉에서 쌍방은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변영을 위한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북남 총리회담을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며 “쌍방은 회담과 관련한 문제들을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보도
 - 이날 예비접촉에는 남측에서 이관세 통일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3명의 대표가, 북측에서도 전중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국장을 단장으로 3명의 대표가 참석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미·북 관계

● 부시, 의회에 대북지원 예산 요청(10/22)

- 부시 미 대통령은 의회에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대가로 연료용 석유 등을 지원하기 위한 대북 지원예산으로 1억600만 달러를 요청했음

● 북·미, 뉴욕서 실무접촉(10/22)

- 알렉산더 아비주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부차관보를 대표로 한 미국 측 대표단이 뉴욕에서 북한측 관계자들을 만나 10·3 북핵 합의 관련 양자협의를 가졌음

● 불능화 작업, 11월 1일 시작

- 힐 차관보는 국무부에서 6자회담 일본측 수석대표인 사사에 겐이치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회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 작업이 다음 달 1일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음(10/23)

● 미, “한반도 평화협정 주체는 남·북·미·중 4자”(10/23)

- 존 네그로폰테 미 국무부 부장관은 「미국 기업연구소」(AEI) 연설에서 미국이 한반도 평화협정의 서명 주체를 남북한과 미·중 등 4자로 보고 있다고 밝혔음

● 힐, “향후 2주내 북핵 프로그램 전면 신고”(10/25)

-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하원 아태·지구환경소위와 테러·비확산·통상소위가 공동개최한 6자회담 청문회에서 향후 2주내에 북한의 핵프로그램 전면 신고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음
- 금년 12월 31일까지 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전면 신고를 모두 끝내겠다는 굳은 의지를 거듭 확인했음
- 북한이 2단계 협의를 착실히 이행한다면 테러지원국 문제도 병행 해결될 것임을 다시 밝혔고, 불능화와 전면신고가 끝나면 평화협정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음
- 그러나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제외하고 적성국교역법 적용을 종결 하더라도 약 3천만 달러로 추정되는 미국 내 북한 동결 자산은 해제하지 않을 방침임
- 달러화 위조 등 양국 간 금융문제 현안을 다루기 위해 북·미 간 금융 실무회의를 수 주 내에 개최할 예정임



나. 중·북 관계

- **중唐山철강, 김책에 제철소 설립 합의(10/20)**
 - 중국 제2위의 철강 생산업체인唐山(唐山)철강이 북한의 김책시에 제철소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 중국 언론은唐山철강그룹이 지난 20일 허베이(河北)성唐山사에서 북한의 대외경제총국 및 대풍국제투자그룹과 김책공업구에 연산 150만t 규모의 제철소 설립을 추진키로 합의하고 합작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보도(10/26)했음

다. 일·북 관계

- **일, 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우려**
 - NHK 방송은 일본 정부가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문제와 관련, 북한의 비핵화 이행의 대가로 빠르면 연내에 해제 조치가 단행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10/25)했음
- **일 외상, “북 납치피해자 일부 귀국 ‘진진’ 판단도 가능”(10/25)**
 - 일본 정부는 납치문제 진전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6자회담 참가국 가운데 유일하게 대북 에너지 지원을 유보해 왔음
 - 고무라 마사히코 일본 외상은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 “납치 피해자 몇 명이 일본에 돌아온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진전됐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밝혔음
- **일 정부, 대북관계 타개 위한 신 대응방침 마련**
 -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 신문은 일본 정부가 납치문제의 암초에 걸려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대북한 관계를 타개하기 위한 새 대응방침을 마련했다고 보도(10/26) 했음
 - 납치피해자 귀국을 최우선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되 납치와 핵·미사일 문제의 진전에 맞춰 단계적으로 제재 해제 및 대북 지원에 응한다는 내용으로, 국교정상화의 최종 목표를 향해 서로 취할 행동을 정리한 것이라고 전했다
- **북·일, 11월 초 국교정상화 실무회의 예정**
 -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 신문은 북·일이 내달초 6자회담의 국교정상화 실무회의를 갖고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의 귀국 등 상황 진전에 따른 단계적 대북제재 해제 및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보도(10/28)했음
 - 북핵 문제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문제의 고비가 될 연말까지는 북·일 관계에서도 일정한 성과를 거둬 이후 다자간 협상 과정에서도 제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방침임



라. 러·북 관계

- 러, “북핵 2단계 합의 연내 이행 어려워”(10/23)
 - 북핵 6자회담 러시아측 수석대표인 알렉산더 로슈코프 외무차관은 도쿄에서 북한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를 높은 오염 수준 때문에 연내에 완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 러·북, 아무르 삼림분야 협력 확대 예정
 - 북한인들이 벌목공으로 일하고 있는 러시아 아무르 지방 당국이 북한과 삼림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음
 - 아무르지역 산업부 차관인 비탈리 페스코프는 “우리는 이 지역 목재 생산을 내년에 최대 83만m³로 늘리고, 향후 100만m³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라며 현재 60만m³의 목재를 생산하는 아무르에서는 약 2천명의 북한인들이 러시아 기업 3곳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10/26)

마. 기타 관계

- 영, 북한에 영어교수법 강사 파견
 - 영국정부 산하 영국문화원은 올 12월 혹은 내년 1월부터 내년 8월까지 평양에서 근무할 영어교수법 강사 3명을 모집한다고 자체 웹사이트에 공고했음
 - 원어민 영어교사들은 평양외국어대학이나 국제관계대학, 김형직 사범대학, 김일성 종합대학 등 영어전공 과목이 개설된 대학에 주로 파견돼 가르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유엔특별보고관, “북, 인권문제에 건설적 태도 보여”(10/26)
 - 비릿 문타폰 유엔 대북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 당국이 인권 문제에 보다 건설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일본인 납치 문제 등에 진전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 그는 최근 유엔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 인권에 ‘일부 건설적 발전’이 있으며 특히 지난 8월 대규모 수해 이후에는 유엔 측의 접근을 허용하는 등 유엔 기구들과 잘 협조하고 있다고 평가했음

2. 주변국 관련

가. 중국 관계

- 후진타오 집권 2기, 공식 출범(10/22)
 - 중국 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17전대)가 중앙위원회 개편과 함께 막을 내렸음(10/21)



- 후진타오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을 총서기로 한 새 정치국 상무위원 9명이 국내외 기자회견을 통해 첫 선을 보이면서 후진타오 주석 2기 집권의 공식 출범을 선언했음
- 시진핑 중국 상하이시 당서기가 중국 공산당 권력서열 6위로 올라서며 리커창 랴오닝성 당서기를 제치고 차기 대권 후계자로 유력해졌음

나. 한·미 관계

● 미 보고서, “대북 인식차, 한·미 동맹의 가장 큰 도전”

- 지난 2005년 한·미 양국이 전략적 정책구상(SPI)을 출범시킨 뒤 미 국방부가 한·미 동맹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국방부 산하 「국방분석연구소」(IDA)와 국방대학 「국가전략연구소」(INSS)를 중심으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정책연구그룹’은 2년여의 작업 끝에 최근 보고서를 마련하였음
- 보고서는 지난 1953년 한·미 방위조약을 토대로 50여 년간 지속돼온 한·미 동맹이 성공적이었지만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가장 큰 요인으로 북한에 대한 한·미 양국의 전략적 인식차를 꼽았음
- 현재의 한·미 동맹은 북한에 대한 양국의 전략적 인식차를 비롯해 중국의 부상, 테러위협,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등 도전에 직면해 있어 변화가 불가피하며 동맹 파기는 양국 모두에 손실을 가져오므로 동맹전환(transformation)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주장하였음

다. 미·일 관계

● 네그로폰테, “일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10/23)

- 존 네그로폰테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거듭 밝혔음
- 그는 한 모임에서의 연설에서 유엔처럼 수 십 년의 역사를 가진 국제 기구가 아시아 국가들의 영향력이 커진 이 시대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면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음
- 부시 대통령은 지난 달 일본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자격을 “충분히 갖췄다”고 지지 의사를 표시했음

● 미 국무부, “일본 납북자 문제 해결 지지 오해 말아야”(10/26)

- 미 국무부는 일본 납북자문제의 해결 없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제외할 경우 미·일 관계가 손상될 수 있다는 토머스 쉬퍼 주일 미국대사의 부시 대통령 앞 전보와 관련, 납북자 문제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오해해서는 안된다고 논평했음

● 미·일, 대규모 합동군사훈련 예정

- 미·일이 지난 13일 일본 근해에서 다국적군을 투입,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기초한 해상 저지훈련을 실시한데 이어 11월



또다시 양국 간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할 계획임

- ‘예리한 칼(keen sword) 2008 훈련’으로 명명된 이번 군사훈련은 내달 5일 시작돼 16일까지 실시되며 육해공을 동원, 입체적인 군사 훈련을 통한 일본의 방위력을 강화하는데 있다고 미 언론이 미군 군사전문지 성조지(星條紙)를 인용, 보도(10/27)했음

라. 미·중 관계

- **미 하원, 중국에 탈북자 복송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10/23)**
 -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중국 정부에 대해 탈북자들의 강제 복송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등 탈북자들의 인권 존중을 촉구하는 탈북자 결의안을 상정,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음

☀ 동북아연구실 제공